

# 구복규 화순군수 “국가 책임 청년·저출산 대책 필요”

### 정부·89개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 첫 정책간담회 개최 전국 최대 결혼장려금·1만원 임대주택 등 우수 시책 소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와 정부 차기 정책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구복규 화순군수가 저출산 정책에 정부의 적극 지원을 건의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구복규 군수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세종시에서 열린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정책간담회’에서 화순군의 인구소멸 대응 시책을 소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인구감소 지역 89곳의 지자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4곳이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였다.

인구감소 지역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장이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직접 건의했다.

구복규 군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구 군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다. 혼자 사는 사람도 많다”며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주거, 보육,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인 특단의 청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그 해결의 시작으로 화순군의 우수 시책을 예시로 제시했다.

구 군수는 “화순군에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만원 임대아파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구복규 화순군수가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정책간담회’에서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 시책을 소개하고 저출산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런 과감한 정책이 아니면 인구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 화순군은 지속적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저출산 복지 정책 지원을 통해 지난해 말 출생아수가 212명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화순군의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은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전국 최대의 결혼장려금 ▲24시 어린이집 ▲출산·양육 지원금 ▲영유아 보육료·아동수당 ▲산후조리 비용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매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것으로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배분 방식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된다. /화순=이병철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세대발사체 사업체로 선정

### 순천 시민 ‘환영’...남해안 우주 클러스터 도약 기대

순천시는 21일 “지난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체’로 선정된 것을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달 착륙선 등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의 주요 탑재체를 우주로 보낼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는 2조132억원 규모의 국가우주계획 핵심 사업으로 민간 기업이 항우연

과 함께 설계부터 발사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본격적인 ‘민간 주도 우주 경제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다.

시는 지난달 15일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우주산업의 선두 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올초1산단 사업 부지에서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

에 이어 과기부 국가산업인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선정’으로 순천시는 발사체 제작부터 우주 탐사까지 가능한 우주 경제 중심도시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위한 엔진, 탱크 등 핵심 부품시설 설치 및 주요 소부장기업들이 집적화돼 남해안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할 예정이다.

노관규 시장은 “4월1일 개장할 순천만국가정원의 슬로건인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처럼 본격적인 우주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순천이 대한민국 최

대의 민간 우주산업 인프라로서 우주경제 시대에 본격적인 발사체 생산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사업 선정의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설립과 이번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선정’의 겹경사를 바탕으로 순천형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2회 우주·방산 포럼을 4월에 개최해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의 허브도시 기반을 더욱 견고히 조성할 예정이다. /순천=정기기자

## 장성군,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 150여명 참여...진달래·배롱나무 등 600여주 식재

장성군은 21일 “지난 19일 장성읍 기산리 황룡강변에서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산림조합장, 임업후계자, 공직자 등 150여명이 동참했으며 진달래, 배롱나무, 홍가시 등 600여주의 나무를 황룡강 일원에 식재했다.

〈사진〉

특히 진달래는 수령(나무의 나이) 50년 이상 된 나무로 키가 4m를 훌쩍 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다.



김한중 군수는 “이번 행사가 미래 세대에 의미 있는 노력으로 전해질 바란 다”고 소회했다. /장성=김문태기자



곡성군은 블루베리를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가온재배를 통해 수확 시기를 3-4월로 앞당겼다. <곡성군 제공>

## 곡성군, 블루베리 조기재배 한창

### 시설하우스로 수확시기 앞당겨

곡성군이 블루베리 조기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21일 곡성군에 따르면 주로 노지에서 재배해 6월부터 수확이 시작되는 블루베리를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가온재배를 통해 수확 시기를 3-4월로 앞당겼다.

군은 블루베리 조기재배 확대를 위해 난방기와 다겹 보온커튼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1.2ha의 조기재배 면적을 올해는 10.95ha까지 확대했다.

올해에는 조기재배를 위해 예산 7억5천만원을 책정했으며 총 9가지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블루베리 조기재배는 농가소득 증대

로 이어지기도 한다.

3월 초에서 중순을 기준으로 블루베리 토포 1kg 당 도매가격이 9만7천원에 거래돼 지난해 6월 평균가격인 3만2천원 대비 3배 이상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한상길 곡성군블루베리연구회 회장은 “기존 노지재배에 비해 2배 이상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고, 시설하우스 재배는 비로 인한 당도 저하나 열과 피해가 없어 품질 역시 우수하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 고흥군, 매실 해충 방제 강화 4월 초부터 3주간 집중 방제 당부

고흥군은 21일 ‘매실 수확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인 ‘복숭아씨살이좀벌’의 발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숭아씨살이좀벌은 매년 봄철 발생하는 해충으로 매실 등과 같은 핵과류의 씨앗 속에서 애벌레로 월동하다가 이듬해 봄에 성충이 돼 어린 매실 표면에 알을 낳는다.

특히 성충이 되기 전까지 씨앗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알과 애벌레, 번데기 기간에는 약제를 써도 방제 효과가 매우 낮다.

이로 인해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충이 과실 속에 알을 낳는 4월 초부터 약 3주간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하다.

방제는 매실의 크기가 1cm 정도 되는 시기부터 약 7일 간격으로 2-3회 방제해야 하며, 성충이 주로 활동하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방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고흥군 관계자는 “복숭아씨살이좀벌에 감염된 매실은 수확기에 열매 겉질이 갈색으로 함몰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꾸준한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와 함께 피해과는 철저히 과원 내에서 제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흥=최봉환기자

## 담양·장성농업기술센터, 2년 연속 고향사랑 상호 기부

담양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장성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상호 기부를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양 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기술센터 직원 간 상호 기부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우호 관계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해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원들이 장성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교류의 폭을 넓혔다.

김나빈이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학승단체 간 교류도 추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양 지자체의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여수 관내 단성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 추진

### 교육청,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여수교육지원청이 관내 단성 중학교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개편을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21일 “지난 20일 진성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여수시제1학교 단성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홍보물 배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남녀공학 개편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홍보해 교육가족과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여수시제1학교 단성 중학교는 9개교 중 1개교(여수문수중학교)를 제외한 8개교가 단성학교로 학교 선택권 확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양성평등 교육 실

현 등을 위해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남녀공학 개편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여수교육지원청에서는 남녀공학 개편 업무 추진을 위한 TF를 지난 1월에 구성해 운영 중이고, 단성 중학교 학교장 협의회, 홍보물 배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향후 남녀공학 개편 찬반 설문조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수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자문, 전남도교육청에 남녀공학 개편을 신청하는 등 추진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1일 남녀공학 개편교가 새롭게 개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수=김진선기자

## 소통으로 함께하는 ‘구례데이’ 개최

### 那, 신규 직원 19명 눈높이 대화

구례군은 21일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구례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구례데이는 변화된 사회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감성 소통 방식을 통해 군수와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

다. 이 프로그램은 소통 주제를 나눠 분기별로 진행된다.

군은 첫 행사로 최근 김순호 군수와 함께하는 브라운백미팅을 열었다. 이번 공감 대화는 올해 신규 임용된 19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했던 공직 생활’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간단한 식사를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김 군수와 대화를 나눴다. 특히 김 군수는 구례군의 대표 축



제인 산수유꽃축제를 처음 담당하는 김순호 군수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직원들의 다양한 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반영해 가족 같은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